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윤진영¹⁾ 정옥분²⁾ 정순화³⁾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420명이고, 수집된 자료는 Cronbach's α ,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과 반응성은 성별에 따라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라서는 전체 유아의 기질과 생리적 규칙성에서 3세와 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불안의 정서표현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넷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끝으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유아의 연령,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가운데 화에 대한 수용태도 그리고 성별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7.1%로 나타났다.

주요어: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자기조절능력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 (E-mail : yjy311@hanmail.net)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3)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I. 서 론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유아는 생후 2세 경이 되면 좌절에 대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여(Eisenberg et al., 1994), 타율적 행동조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점차 자기인식과 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3세 경이 되면 타인 앞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숨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며(Cole, 1986), 생후 3~5세 경이 되면 자율적 행동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자기조절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기조절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문제행동, 공격성, 사회정서발달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호정, 2001; Bronson, 2000).

실제로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캠퍼스 내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으로 범인 개인의 우울증, 정신적 결함, 사회 부적응, 생계를 위해 바쁜 부모, 미국 내 총기소유 허용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요인이 좀 더 주도적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화 과정에서의 환경

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서의 개인차가 이후의 행동장애와 관련 된다고 지적하면서(원영미, 1990; Thomas & Chess, 1977), 기질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고 있다. Bates(1980)와 Lytton(1990)은 유아의 기질이 까다로울 경우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비통제적인 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Eisenberg 등(1994)은 사회적 행동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정서와 자기조절능력을 강조하고, 기질, 자기조절, 정서적 반응 등을 개념화하면서 이들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게 되는 곳은 가정이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부모-자녀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시작되는데, 이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황에서도 연관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어떠한 태도나 반응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양육태도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태도 및 행동양식이므로 양육자의 어떠한 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근 양육태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자녀가 밖으로 표출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Kring et al., 1994). Dunn과 Brown(1991)은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과 습득에서 일차적 환경으로 자기조절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적인 태도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반영해 볼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보다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반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정서를 조절하는데 있어 억제조절 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PACES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김문신, 2003; 신현숙, 2005; 한영민, 2005).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또래관계에 참여하고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키며, 나아가 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외에도 성별과 연령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과 성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김옥희, 2003; 이정란, 2003; 허정경,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인에 따라 그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들(박호선, 2002; 서동미, 1996)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유아기의 자기조절능력은 바람직한 사회적 적응과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 중요하며, 유아의 기질이나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자기조절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유전적 요인인 기질과 구체적인 환경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자기조절능력을 밝히고, 그 관계를 살펴 본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3~5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

의 자기조절능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성별과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5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3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9)

변인		사례 수(명)	백분율(%)
유아의 연령	만 3세	121	33.7
	만 4세	121	33.7
	만 5세	117	32.6
만30세 이하		23	6.4
어머니의 연령	만31세 - 35세	166	46.2
	만36세 - 39세	144	40.1
	만40세 이상	26	7.2

측정도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정란(2003)이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31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자신의 인지적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평가,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의미하는 자기결정, 하고 싶은 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억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기억제가 안 되는 것을 의미하는 정서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교육 전문가 및 아동학 전공교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경력에 있는 박사과정생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고,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75~.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 유아의 기질 유형화를 위해 천희영(1992)이 개발한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33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적응성,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의미하는 활동성,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는 생리적 규칙성,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응성,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정서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

렇다'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문항변별력을 구한 결과 모든 문항의 변별력이 .25이상이었으며, 각 문항과 차원 점수간의 상관은 .41~.85의 범위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67~.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aarni(1990)가 개발한 PACES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를 이지선(2002)이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20문항으로 구성된 본 척도는 화, 슬픔, 두려움, 불안, 호기심, 행복, 혐오감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4점 척도로 부모가 자녀의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은 통계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4점은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Saarni(1990)는 부모의 통제행동을 측정하는 다른 관련척도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수렴타당도를 검증하였고, 결혼만족도 등과 같은 PACES의 구성개념과 거리가 먼 가족의 태도 등에 관한 척도들과의 낮은 상관관계를 입증함으로써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59~.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2007년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의 어머니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회수된 369명의 설문지 중 부실한 응답을 한 10명을 제외한 359명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ANOVA가 유의한 경우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고,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잔차항들이 상호간에 독립적이며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

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함에 있어 성별은 가변수화(남=0, 여=1)하여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

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유아의 기질 총점평균은 2.91(SD=.24),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총점평균은 2.79(SD=.32),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점수의 총점평균은 3.42(SD=.46)로 나타났다.

표 2.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n=359)

변인	하위요인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기질	적응성	2.87	.47
	활동성	2.70	.38
	생리적규칙성	3.07	.53
	반응성	3.16	.39
	정서성	2.74	.41
	총점	2.91	.24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화	2.81	.54
	슬픔	2.97	.70
	두려움	3.36	.45
	불안	3.33	.54
	호기심	2.31	.50
	행복	1.89	.67
	혐오감	2.82	.93
	총점	2.79	.32
자기조절능력	자기점검	3.95	.71
	자기평가	3.23	.62
	자기결정	3.34	.51
	행동억제	3.16	.57
	정서성	3.42	.46
	총점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이원분산분석 (n=359)

유아의 기질	변량원	df	SS	MS	F
총점	성별(A)	1	.005	.005	.087
	연령(B)	2	.421	.211	3.689*
	A×B	2	.051	.026	.450
	오차	353	20.152	.057	
	전체	359	3125.897		
적응성	성별(A)	1	.002	.002	.011
	연령(B)	2	.850	.425	1.967
	A×B	2	1.137	.569	2.634
	오차	353	76.217	.216	
	전체	359	3033.950		
활동성	성별(A)	1	1.801	1.801	12.879***
	연령(B)	2	.736	.368	2.630
	A×B	2	.242	.121	.865
	오차	353	49.361	.140	
	전체	359	2663.407		
생리적 규칙성	성별(A)	1	4.90E-05	4.903E-05	.000
	연령(B)	2	2.483	1.242	4.437*
	A×B	2	.670	.335	1.198
	오차	353	98.771	.280	
	전체	359	3487.750		
반응성	성별(A)	1	2.548	2.548	17.748***
	연령(B)	2	.360	.180	1.253
	A×B	2	.193	.097	.674
	오차	353	50.699	.144	
	전체	359	3633.722		
정서성	성별(A)	1	.003	.003	.019
	연령(B)	2	.850	.425	2.506
	A×B	2	.054	.027	.160
	오차	353	59.896	.170	
	전체	359	2748.313		

* $p < .05$. ** $p < .01$. *** $p < .00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들 중 활동성과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활동성에서 남아의 점수($M=2.77$, $SD=.37$)가 여아의 점수($M=2.63$, $SD=.38$)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응성에서는 여아의 점수($M=3.24$, $SD=.35$)가 남아의 점수($M=3.07$, $SD=.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유아의 기질 총점, 생리적 규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총점과 생리적 규칙성은 만3세와 만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

용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서표현 수용태도 하위요인 중 불안 영역에서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점수($M=3.39$, $SD=.54$)가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점수($M=3.27$, $SD=.5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조절능력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여아($M=3.53$, $SD=.42$)가 남아($M=3.31$, $SD=.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도 자기평가 영역에서 여아($M=4.09$, $SD=.66$)가 남아($M=3.81$, $SD=.73$)보다 높았고, 자기결정 영역에서도 여아($M=3.36$, $SD=.57$)가 남아($M=3.10$, $SD=.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 영역에서도 여아($M=3.25$, $SD=.50$)가 남아($M=$

표 4.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 총점 및 하위요인별 사후검증

유아의 기질	연령(만)	대상 수(명)	평균	Grouping
총점	3세	121	2.87	a
	4세	121	2.89	ab
	5세	117	2.95	b
생리적 규칙성	3세	121	2.96	a
	4세	121	3.06	ab
	5세	117	3.18	b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표 5. 성별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이원분산분석

(n=359)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	변량원	df	SS	MS	F
충점	성별(A)	1	.363	.363	3.571
	연령(B)	2	.481	.241	2.365
	A×B	2	.245	.122	1.202
	오차	353	35.930	.102	
	전체	359	2823.793		
화	성별(A)	1	.671	.671	2.347
	연령(B)	2	1.152	.576	2.015
	A×B	2	.295	.147	.515
	오차	353	100.883	.286	
	전체	359	2933.250		
슬픔	성별(A)	1	.503	.503	1.040
	연령(B)	2	.876	.438	.905
	A×B	2	.678	.339	.700
	오차	353	170.945	.484	
	전체	359	3347.250		
두려움	성별(A)	1	.735	.735	3.663
	연령(B)	2	.152	.076	.378
	A×B	2	.200	.100	.498
	오차	353	70.793	.201	
	전체	359	4121.563		
불 안	성별(A)	1	1.286	1.286	4.412*
	연령(B)	2	.696	.348	1.194
	A×B	2	.042	.021	.073
	오차	353	102.885	.291	
	전체	359	4093.778		
호기심	성별(A)	1	.455	.455	1.828
	연령(B)	2	.056	.028	.113
	A×B	2	.182	.091	.365
	오차	353	87.856	.249	
	전체	359	2012.111		
행 복	성별(A)	1	.063	.063	.138
	연령(B)	2	.441	.220	.487
	A×B	2	1.429	.714	1.577
	오차	353	159.880	.453	
	전체	359	1448.556		
혐오감	성별(A)	1	1.266	1.266	1.471
	연령(B)	2	2.443	1.222	1.420
	A×B	2	1.072	.563	.623
	오차	353	303.756	.860	
	전체	359	3167.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6.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이원분산분석

(n=359)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변량원	df	SS	MS	F
총점	성별(A)	1	4.179	4.179	28.708***
	연령(B)	2	18.430	9.215	63.308***
	A×B	2	1.181	.590	4.056*
	오차	362	51.382	.146	
	전체	368	4274.816		
자기평가	성별(A)	1	6.681	6.681	16.067***
	연령(B)	2	24.590	12.295	29.549***
	A×B	2	1.791	.895	2.152
	오차	362	146.878	.416	
	전체	368	5779.320		
자기결정	성별(A)	1	6.146	6.146	20.865***
	연령(B)	2	27.024	13.512	45.875***
	A×B	2	.973	.487	1.652
	오차	362	103.973	.295	
	전체	368	3872.679		
행동억제	성별(A)	1	3.071	3.071	13.928***
	연령(B)	2	13.040	6.520	29.571***
	A×B	2	.752	.376	1.705
	오차	362	77.831	.220	
	전체	368	4104.460		
정서성	성별(A)	1	1.851	1.851	6.51186*
	연령(B)	2	11.801	5.901	20.755***
	A×B	2	2.000	1.000	3.517*
	오차	362	100.357	.284	
	전체	368	3710.722		

* $p < .05$. ** $p < .01$. *** $p < .001$

3.25, SD=.50)보다 높았으며, 정서성 영역에서도 여아(M=3.24, SD=.55)가 남아(M=3.09, SD=.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어떤

표 7.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 및 하위요인별 사후검증

유아의 자기 조절능력	연령	대상 수	평균	Grouping
총점	3세	121	3.17	a
	4세	121	3.38	b
	5세	117	3.72	c
자기평가	3세	121	3.67	a
	4세	121	3.89	b
	5세	117	4.30	c
자기결정	3세	121	2.93	a
	4세	121	3.16	b
	5세	117	3.60	c
행동억제	3세	121	3.11	a
	4세	121	3.34	b
	5세	117	3.58	c
정서성	3세	121	2.96	a
	4세	121	3.14	b
	5세	117	3.40	c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과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그리고 정서성 모두 만3세, 만4세, 만5세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과 하위요인 중 정서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1, 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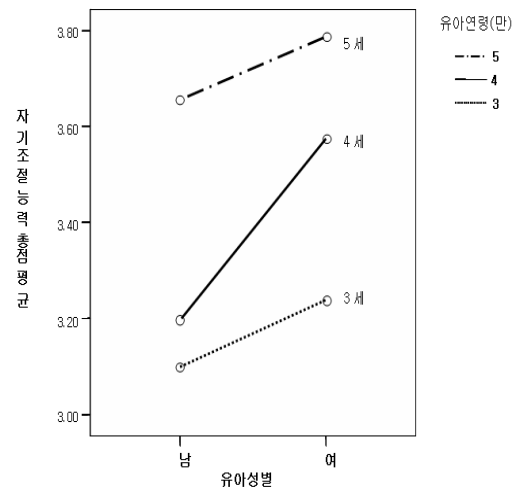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총점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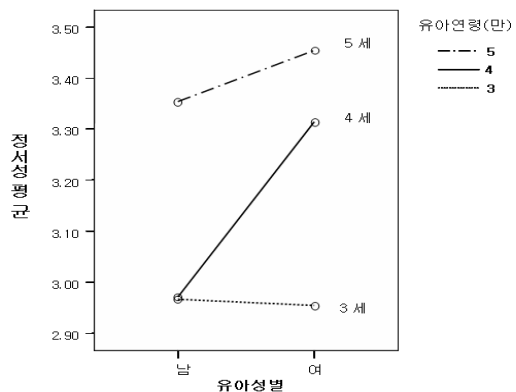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성의 상호작용 효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은 만3세, 만4세, 만5세의 모든 집단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에서 유아의 성

표 8.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총점의 단순 주효과 검증

	남			여		
	<i>M</i>	<i>SD</i>	grouping	<i>M</i>	<i>SD</i>	grouping
만3세	3.10	.44	a	3.24	.38	a
만4세	3.20	.39	a	3.58	.33	b
만5세	3.66	.37	b	3.79	.36	c
F=32.263***				F=35.814***		

* $p < .05$. ** $p < .01$. *** $p < .001$.

abc: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분석하는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남아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 집단과 만5세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서성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보듯이 정서성은 만3세 때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만4세와 만5세에서는 여아가 남

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아의 정서성은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만5세 집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에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정서성을 분석하는 단순 주효과(simple main effec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성에서 남아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만3세 및 만4세 집단과 만5세 집단 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만4세와 만5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표 9. 성별에 따른 정서성의 단순 주효과 검증

	남			여		
	<i>M</i>	<i>SD</i>	grouping	<i>M</i>	<i>SD</i>	grouping
만3세	2.97	.49	a	2.95	.47	a
만4세	2.97	.59	a	3.31	.55	b
만5세	3.35	.58	b	3.45	.51	b
F=9.589***				F=15.250***		

* $p < .05$. ** $p < .01$. *** $p < .001$.

ab: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이지 않았고, 만3세 집단과 만4 집단 및 만5 세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10, p<.001$),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55, p<.001$).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별로 상관관계를 산출 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표 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 (n=359)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총점
유아의 기질	적응성	.270***	.178**	.112*	.217***	.263***
	활동성	-.034	-.164**	-.351***	-.359***	-.279***
	생리적규칙성	.179**	.159**	.238***	.152**	.237***
	반응성	.462***	.317***	.121*	.002	.321***
	정서성	.115*	.167**	.200***	.305***	.252***
	총점	.362***	.248***	.146**	.143**	.310***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화	.197***	.191***	.191***	.127*	.234***
	슬픔	.072	.044	.100	.185***	.128*
	두려움	.130*	.091	.127*	.123*	.155**
	불안	.058	.055	.071	.058	.079
	호기심	.073	.054	.120*	.122*	.118*
	행복	.044	.050	.166*	.079	.091
	혐오감	.058	.132*	.137*	.101	.137**
	총점	.163**	.172**	.236***	.218***	.255***

* $p<.05$. ** $p<.01$. *** $p<.001$.

표 11.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n=35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F	R^2	ΔR^2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유아의 연령	.276	.490***	112.972***	.140	
	반응성	.338	.286***	84.393***	.222	.082
	활동성	-.342	-.285***	78.609***	.299	.077
	적응성	.227	.231***	72.562***	.351	.052
	화	.116	.136**	62.243***	.369	.018
	유아성별	.105	.114**	54.221***	.381	.012
				$R^2_{adj.}$	= .371	

* $p < .05$. ** $p < .01$. *** $p < .001$.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947인 것으로 나타나 오차항간에 자기상관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허용도 값이 .1이상, VIF값이 10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 계수가 .03~ .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11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연령, 성별, 기질 하위요인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유아의 연령,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 화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태도와 유아의 성별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주는 설명력은 37.1

%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전반적인 자기조절능력 및 하위영역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기준을 잘 설정하고, 자기조절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아가 대부분 남아보다 높은 자기조절능력을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옥희, 2003; 허정경, 2003)을 지지한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 및 하위요인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나 환경에 의한 지시, 금지, 순종에 의한 타율적 조절능력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내재화되면서 자율적 자기조절능력으로 전이되어 발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도 증가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박호선, 2002; 이정란, 2003; Mischel, 1983)와 일치한다. 연령의 증가는 신체 및 뇌의 성숙과 발달을 이루게 하며, 그 결과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제반 요인들 즉, 표상적 사고와 언어능력 등을 발달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기조절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총점과 정서성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자기조절능력에서 남아는 만4세와 만5세 집단 간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인 자기조절능력에서 여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자기조절능력도 발달하지만, 남아는 만4세 때에도 만3세와 유사한 발달 수준을 보이다가 만4세와 만5세 사이에 상대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영역 중 정서성에서 남아는 만4세와 만5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반면, 여아는 만3세와 만4세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정서성은 만3세경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가 만4세경에는 여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급격히 발달하여 성별의 차이를 보이다가 만5세경에는 남아의 자기조절능력이 급격하게 발달하여 다시 성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조절능력 발달이 다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이 빠르다는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차이는 그 이유가 과제의 특성 때문인지, 상황적 특성 때문인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기질은 성별에 따라 활동성과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반적인 유아의 기질과 생리적 규칙성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은 평균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활동적인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반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전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신경계의 성숙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아는 자극에 더 반응적인 반면,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진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남아의 활동수준이 여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Hetherington(1970)의 견해를 지지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사회화 과정에서 충동성과 활동성은 남아에게 더 허용적이고, 여아에게는 더 민감한 반응을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수준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차이는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에서의 차이를 근간으로 하여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상이하며, 가정이나 문화권에서 기대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기질은 전반적인 기질과 생리적 규칙성에서 만3세와 만5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적응성,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에서는 연령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의 뇌와 신경계의 성숙

및 신체발달의 영향으로 생리적 주기가 보다 규칙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질의 안정적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질적 특성이 연령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연구결과(Caspi & Sliva, 1995; Kagan, 1992; Rothbart et al., 1994)와 일치한다. 따라서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기질에서의 차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으로만 간주하거나 혹은 변화하는 속성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 중 두려움, 불안, 슬픔, 혐오감 그리고 화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호기심과 행복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두려움, 불안, 슬픔, 혐오감, 화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감정표현에는 수용적이지만 호기심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대한 감정표현에는 보다 통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의 호기심과 행복을 표현하는 항목이 타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즉, ‘버스에서 특정한 낯선 사람을 계속 쳐다보는 상황’, ‘레스토랑이나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나 웃음이 나오는 상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는 보편적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려움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행복에 대한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가장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지선(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여아의 불안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하여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남아의 불안에 대한 정서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표현을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rowley와 Saarni(1989)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다 통제적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성별과 양육태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 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방식과 기대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Becker, 1964; Rothbart & Maccooby, 1970)을 지지한다. 특정한 문화권에는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는 정서표현이 존재하며, 사회화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이러한 문화적 규범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수용태도 차이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서표현에 대해 그다지 허용적이지 않은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남아들에 대해서는 더욱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의 정서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장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남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지각이나 표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은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대표적인 정서장애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서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주로 대뇌변연계와 신피질, 특히 언어체계 중심부와의

단절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발달수준이나,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및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Sifneos, 197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유아의 정서장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넷째,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유아의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조절능력과 활동성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최지현, 2000; Buss & Goldsmith, 1998)과 일치한다. 영아는 출생 직후부터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개인차는 기질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기질의 차이는 개인마다 각기 다른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유형으로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유아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므로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조절이 잘 된 상태로 표현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으며 통제적일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낮다는 연구결과(김문신, 2003)와 일치하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양육자

의 역할,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 Kopp(1982)의 견해,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의 발달은 모델이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Bandura, 1997)를 지지한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화에 대한 수용태도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슬픔과 불안 등의 정서를 표현하도록 따뜻하게 복돋워 줄 때 자녀들은 더욱 적응을 잘 하며, 능력 있는 사회적 행동유형을 발달시켰다는 여러 선행연구들(Eisenberg & Fabes, 1992; Hyson, 1994)과 적대적, 거부적, 권위적 양육행동들이 유아의 자기 통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안미경, 1997, 이영숙, 2003)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영향력은 유아의 연령과 기질의 하위요인 중 반응성, 활동성, 적응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하위요인 중 화에 대한 수용태도 그리고 유아의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37.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및 뇌의 성숙과 관련해 연령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개인 내적 요인 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설명해 주는 예측변인 중 환경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그 하위요인 중 화에 대한 수용태도만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지각하는 정서표현 수용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이복자, 1997)에 비추어 볼 때에,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개인 내적인 요인인 성별, 연령, 기질 등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외적인 요인인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녀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표현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할 때 유아는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 모두에 대해 억제전략을 강조해 온 문화이다. ‘화가 나면 10을 세어라, 그래도 화가 나면 100을 세어라’라는 표현처럼 분노의 감정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출구를 강조하고 언급하기 보다는 이를 억제하는 방식을 강조해 왔다. 이와는 달리 최근에는 한자녀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자녀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전혀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바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서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것이며 특히, 화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표현 수용태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과 경기지역 소수의 표본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포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만3, 4, 5세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정서표현 수용태도를 측정하였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관련성만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생태학적 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가정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나, 이는 교육기관에서 측정하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동시에 측정

하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양상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신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옥희 (2003).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호정 (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발달간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동미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현숙 (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미경 (199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복자 (1997). 아동의 정서표현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2003). 부모의 수용-거부와 아동의 자기표현, 자기유능감,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선 (2002). 부모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천희영 (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최지현 (2000).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민 (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한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정경 (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된 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26(4), 299-319.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uss, K., & Goldsmith, H. (1998). Fear and anger regulation in infancy: Effects on the temporal dynamics of affective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69, 359-374.
- Caspi, A., & Silva, P. A. (1995). Temperamental qualities at age three predict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hood: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6), 1309-1321.
- Crowley, J. M., & Saarni, C. (1989).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iency in social situ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meeting of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ocky Mountai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no, Nevada, April.
- Dunn, J., & Brown, J. R. (1991). Relationships, talk about feelings, and the development of affect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In J. Garber & K. A. Dodge(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pp. 89-10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Maszk, P., & Smith, M. (1994).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5-1384.
- Hetherington, E. M. (1970). Sex typing, dependency, and aggression. In T. D. Spencer & N. Kass(Eds.). *Perspectives in child psychology*. New York: McGraw Hill.
- Hyson, M. C. (1994).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The contributions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4), 1047-1055.
- Kagan, J. (1992). Behavior, biology, and the meanings of temperamental constructs. *Pediatrics*, 90, 510-513.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Kring, A. M., Smith, D. A., & Neale, J. M. (1994). Individual difference in dispositional expressivity sca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6, 934-949.
- Lytton, H. (1990). Child and parent efforts in boys' conduct disor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83-697.
- Mischel, W. (1983). Convergences and challenges in the search for consistency. *American Psychologist*, 39, 351-364.

- Rothbart, M. K., & Maccoby, E. E. (1970). Parent's differential reactions to sons and daughter readings.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 303-314.
- Saarni, C. (1990). Emotional competence: How emotions and relationships become integrated. In R. A. Tompson (Ed.). *Socioemotional development* (pp. 115-18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ifneos, P. E. (1973). The prevalence of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psychosomatic patients.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22, 255-262.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Vygotsky, L. S. (1962). *Mind in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7. 07. 01.
수정원고접수 : 2007.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7. 09. 04.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Jin Young Yoon Ock Boon Chung Soon Hwa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 self-regulate, related to their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attitude toward th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subjects were 359 mothers of 3-5 year old children in Seoul and Kyunggi-do. Chun's Children's Temperament Measure (1992)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temperament. Saarni's Parent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Scale (1990) was used to assess the mothers' attitude toward the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Also, Lee's Children's Self-regulation Measure (2003) was used to assess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ronbach Alpha, two-way ANOVA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regulation by gender and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temperament in activity and reactivity by gender. Mothers accepted daughters with more sympathetic and empathic response when daughters expressed anxiety.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related to temperament and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gender, reactivity, activity, adaptability, maternal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of anger, and children's age were the variables that predicted self-regulation. These variables explained 37.1%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Key words :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eness, Children's Self-regulation